



회원들에게 기(氣)를 불어넣는 인천광역시지회

오로지 회원들을 위해 산다

가지가지 뽀여 있는 강줄기가 모여 커다란 바다를 이루듯 전국의 지회지부가 모여 (사)대한제과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베이커리>는 전국 지회지부의 왕성한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지회지부 탐방'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불황에 힘들 어하는 회원들에게 축제를 통해 활기찬 기(氣)를 불어넣고 있는 인천광역시지회를 찾았다.

글·김영주 기자 | 사진·전문식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한 여 름보다 더 땀을 뻘뻘 흘리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인천 지역 최대 먹거리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음식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인천광역시 지회(이하 인천시지회) 임원과 회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조영규 인천시지회장

축제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인천시지회 임원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지회 사무실에 모여 축제를 위해 열띤 논의를 가졌다. 지회 사무실 한 칸에 있는 낱짜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뽀뽀이 적혀있는 커다란 칠판이 그들의 바쁜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축제 참가로 새로운 활로 마련

인천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가 주관하는 인천음식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는 먹거리 축제다.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과제빵 전시관이 새롭게 생긴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인천 지역 회원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가 인천 시민들에게 회원들의 업소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건강하던 체력까지 바닥났다는 조영규 지회장은 이번 행사에 대한 바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지회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인 지역 제과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했던 경인빵·과자전시회를 관람했던 시청 관계자가 제과업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인연이 닿았다.

이번 행사는 경인빵·과자전시회와는 달리 시의 운영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라서 이것저것 막힐 때도 많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다고. 특히 시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 참여가 결정되던 순간부터 인천시지회 사람들은 제과업계의 발전된 모습을 인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몸이 아무리 고달파도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준비한 축제는 연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대성황을 이루었다.

‘화합’과 ‘발전’이 인천시지회 최고의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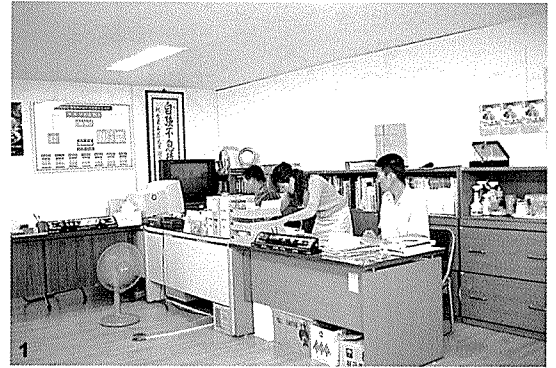
인천시지회가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화합’이다. 7개의 지부는 매달 이사회를 통해 지부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고 다시 그 지부 임원들이 모여 효율적인 지회 운영과 관련해 회의를 한다. 매 회의 때마다 항상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는 지 실재없이 찾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인천시지회의 가장 큰 목표가 회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지회이므로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언제나 그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천시지회는 1년에 한번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격년으로 한해는 축구대회, 한해는 가족체육대회를 열어 회원들과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런 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각 지부마다 소녀소년 가장이나 무의탁 노인들에게 매달 빵과 케이크를 전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도 열심이다. 사회봉사 활동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그 영향이 경인 제과업계에 좋게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아는 탓이다. 인천시지회의 여러 지부들이 모범 자원봉사 단체로 선정되는 등 인천시에서도 우수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인천시지회는 인천 지역 기술 발전을 위해 제과 선진국 견학도 꾸준히 추진한다. 매달 일정 금액 회비를 모아 여행비용으로 충당하고 각국에 유명 제과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다녀온 일본 견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유럽 탐방을 계획 중이다. 지회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들을 위주로 선정해 지회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지역 기술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생각이다.

회원들과 하나되고,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인천시지회. 오로지 회원을 위해 사는 인천시지회 모습에서 승승장구 발전해갈 경인 지역 제과업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㉔



1. 얼마 전 새롭게 이전한 인천광역시지회 사무실.
2. 칠관위에 뽐뽐하게 적힌 준비 일정이 음식축제로 바뀐 인천광역시지회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위생교육 등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
4. 올해로 세대를 맞은 인천음식축제로 처음으로 제과제빵 전시관이 세워졌다.

